



##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이 윤 경\*

본 연구는 20대 이상 65세 미만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 이미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64세의 7,76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의 건강, 정서, 지적능력과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로 양분하여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노인층은 노인의 건강과 정서, 지적능력과 경제력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은 4가지 영역 중 노인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은 경제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이미지 영역 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 노인과의 동거여부, 노후에 대한 가치관, 거주지역 변수가 노인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거주하는 사람이 그리고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밀접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노인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단어:** 노인, 이미지, 비노인층의 노인 이미지, 노후 가치관

### I. 서 론

최근 노화(aging)연구에 핵심 주제인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서는 기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오류를 지적하며,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노인정책에서도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인력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6). OECD(2005)는 고령화로 인한 국가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재정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의 정년을 연장시키고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노인이 더 오래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기능의 장애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영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를 방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김정한(2005)에 의하면 고용주가 중·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중·고령자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작업능력이나 능력이 떨어진다, 체력문제로 힘든 작업이 곤란하다, 처우가 힘들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실제로 고용으로 대표되는 사회참여를 어렵게 함을 보여준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사회적 측면에서나 개인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낳을 것이며, 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원영희, 2004). 김영숙(2002)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취업, 의료서비스의 혜택 등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낳을 수 있고, 노인과 함께 사는 일을 기피하게 할 것이며, 부정적인 인식이 증폭되면 노인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미혜(2003) 또한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나타나는 노인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됨을 지적하며 노인복지정책에서의 노인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노인층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인들이 내재화함으로써 노인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거나 스스로의 내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Seefeldt, Jantz, Galper and Serock, 1977).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 개개인의 자존감 저하와 적극적 사회참여 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및 노인학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적극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중요해지고 있다. 이금룡(2004)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노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기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이들 자신 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을 더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노인층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 이미지 개념 및 기존 연구동향

노인의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이미지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태도, 인식, 고정관념, 편견 등이다. 이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지(image)’란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映像) 또는 심상(心象),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이나 인상을 의미한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는 뜻이며, ‘태도’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거두는 모양새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며,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한다(동아 새국어사전, 2006). 이들 중 이미지와 인식은 거의 유사하며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정관념과 편견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또한 태도는 인식과 의식의 차원보다는 행동적인 차원의 용어로서 노인차별과 유사한 용어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Palmore(1999)는 고정관념은 한 집단에 대한 잘못된 신념으로 인지적 특성이 강한 반면 태도는 정서적 특성이라고 구분하고 있으며(김미혜, 2003 재인용), 이인수(2000)는 인식이란 관념적 이미지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과 실제로 접하면서 경험한 구체적인 느낌 사례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즉, 이미지를 비롯한 인식, 태도 등의 용어가 근소한 의미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이들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용어의 긍정적, 부정적 성향을 포함하며,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으로 직접적인 접촉 외에도 간접적 접촉 등을 통해 얻어진 인상으로 정의된다.

노인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에서는 1950년 경에 시작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명희(1974)의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분석”을 시작으로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성공적 노화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인 Rowe and Kahn(1998)에서는 노화에 대한 6가지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은 아프고, 노인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으며, 노인의 생활습관은 고칠 수 없으며, 성공적으로 늙는 것은 본인의 통제권 밖의 유전에 의한 것이다. 또한 정열이 매우 낮고,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Nuessel(1982)의 연구에서도 ‘노인은 일반적으로 피곤하며, 아프고,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느리고, 잘 잊어버리며,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잔소리가 많으며, 위축되어 있으며, 스스로 안됐다고 여기고, 활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

며, 불행하고, 비생산적이며, 방어적이다'라고 나타났다.

김미혜(2003)의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에서 부정적 이미지의 내용은 노인은 질병을 앓고 있으며, 초라하고 지저분한 외모를 가진 존재로, 과거 지향적이며 내향적, 폐쇄적, 권위적이고, 무서우며, 외롭고 우울한 성격을 지니며,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가족과 단절되어 혼자사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일할 곳이 없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연구도 있다. 안옥희 외(2002)에서는 노인과 연상되는 이미지로 '인생경험이 풍부하다', '부지런하다', '온화하다', '인자하다' 등이 제시된다. 원영희(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대한 전반적인 편견이 활용되어진 도구의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영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노인은 성에 관심이 없다' 등과 같은 성·결혼 영역이나 '노인이 되면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와 같은 사회활동 영역에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나, '노인은 타인의 관심을 필요 이상 요구한다', '노인이 되면 남에게 의존하려 든다'와 같이 대인관계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노인에게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준 연구(조명희, 1974; 차용은, 1980; 윤진·조석미, 1982; 김미혜, 2003)에 비해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준 연구들(조명희, 1987; 광필선, 1989; 이선자, 1989; 옥은진, 1990; 윤성혜, 1990; 조성혜, 1990; 최춘혁, 1992; 신귀연, 1996; 서병숙·김수현, 1999; 이시형 외, 1999; 이은미, 1999; 김영숙, 2002; 원영희, 2004)이 많이 나타난다. 노인 이미지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요 대상은 아동, 중고등학생의 청소년기(김혜경, 1997; 김지형·장윤옥, 2001; 김영숙, 2002 외 다수), 대학생(서병숙·김수현, 1999; 박경란·이영숙, 2001; 이영숙·박경란, 2002 외 다수)이며, 비노인층 중 성인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성, 연령과 같이 인구학적 특성, 노인과의 접촉요소인 노인과의 동거경험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노인과의 접촉의 한 측면인 노인과의 대화정도, 노인문제 관심도, 노인관련 교육여부가 노인 이미지 결정요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거주지역, 가정교육, TV 시청

량, 조부모 또는 부모의 사회참여 정도와 친밀도 등이 요인으로 언급된다.

성은 여러 연구에서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차용은, 1980; 조명희 1987; 최춘혁, 1992; 안옥희 외, 2002; Tuckman and Lorge, 1952; Kogan, 1961),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청년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에게 더 긍정적이었다. 원영희(2004)의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연수, 1993; 서병숙·김수현, 1999; Troxler, 1971)도 있어 노인 이미지 요인으로서 성의 유의미성과 영향의 방향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연령은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선자(1989)는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부정적이 되어 성인기와 중년기까지 지속된다고 보고한다. 신귀연(1996)은 청소년이 아동보다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윤성혜(1990)는 청년·중년·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청년이 가장 부정적이며, 노년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옥희 외(2002)는 대학생보다 중학생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금룡(2004)은 노인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까지는 긍정적인 것이 많으나 중년기가 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 60대 이상에서는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비노인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하고, 노년기는 비노인층에 비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노인층의 어느 연령시점에서 급격히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은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동거경험이 노인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의 연구(조명희, 1974; 차용은, 1980; 김광숙, 1987; 조성혜, 1990; 최춘혁, 1992; Ward et al., 1999 등 다수)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연구(이선자, 1989; 서병숙·김수현, 1999)가 있다. 또한 동거경험이 부정적 이미지를 낳는다는 연구(임인혜, 1987)가 있다. 동거경험과 노인 이미지가 무관하다는 연구(이은미, 1999)가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원영희(2004)와 Schwartz and Simmons(2001)는 노인과의 접촉의 빈도보다는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병숙·김수현(1999)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대화정도, 노인문제관심정도, 노인에 관한 수업을 받은 정도가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영희(2004) 연구에 의하면 조(노)부모의 사회활동이 많

을수록,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노인편견이 낮게 나타나며, 거주지역, 가정교육, 조부모-손자녀 관계, TV 시청량 등이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관계의 방향은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노인대상 자원봉사의 경험 (Anderson-Hanley, 1999), 노인에 대한 부모의 태도, 거주지역, 대중매체(이신숙·Sonia, 2005) 등의 요인들이 노인의 이미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 자료이다. 동 조사는 전국규모 조사로 가구조사와 가구내 노인심층조사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조사의 내용은 개별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결혼상태), 가구 수입 및 취업형태, 세대주와 배우자의 부모세대와의 거주유형을 비롯하여 노인과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이다. 가구조사의 응답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등 가구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완료된 총 가구수는 9,308가구이다. 이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응답자 중 연령이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7,767명이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이미지는 노인의 건강, 정서, 지적 능력, 경제력이라는 영역에 따라 다른가? 둘째, 영역별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의 이미지는 연령대별(청□중□장년층)로 어떻게 다르며, 결정요인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이다. 이상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는 노인의 건강, 정서, 지적 능력,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러한 영역설정은 기존 노인 이미지 연구에서 나타난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이미지의 측정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제시하여, ‘노인’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근접한 느낌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영역별 활용된 용어는 건강(정정하다·노쇠하다), 정서(낙관적이다·비관적이다), 지적 능력(현명하다·독단적이다), 경제력(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이며, 긍정적 응답은 1, 부정적 응답은 0으로 코딩하였다.

1) 본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참고바람.

&lt;표 1&gt; 분석에 포함된 변수

변수군	개별 변수 및 범주
<b>&lt;독립변수&gt;</b>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남, 녀) 연령(청년: 20-39세, 중년: 40-49세, 장년: 50-64세) 교육수준(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월평균가구소득 <sup>1)</sup>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거주지역(농촌, 도시)
노인동거경험 및 부모관련 변수	노인동거여부 부모건강상태(건강함, 건강하지 못함)
노후 가치관	적합한 노후생활마련 방법(본인 직접 마련, 자녀 마련, 국가 마련) 노후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 <sup>3)</sup>
<b>&lt;종속변수&gt;</b>	
	노인의 건강에 대한 이미지(노쇠, 징정) 노인의 정서에 대한 이미지(비관, 낙관) 노인의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독단, 현명) 노인의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의존, 독립)

주: 1) 응답자의 월평균가구소득의 중위값(2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2) 노인의 영역별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0, 긍정적 이미지=1로 코딩함.

3) 정서적 유대·비슷한 가치관, 근거리 거주·빈번한 연락, 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게 판명되었거나 유의미성이 판명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의미가 있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기존연구에서 노인 이미지에 유의미성이 나타난 성, 연령, 거주지역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법정 노인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20-39세, 40-49세, 50-64세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응답자의 중위소득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노인관련 변수는 노인동거여부, 부모 건강상태이다. 노인동거여부는 부모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내에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모건강상태는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구주의 부모와 가구주 배우자부모의 건강상태로 모두 건강한 경우와 한명이라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부모가 없는 경우는 비해당으로 처리하였다.

노후에 대한 가치관이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음으로 본 연구에서 실험적이며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치는 부분적으로 지적인 동시에 감정도 포함하는 정신적인 구성개념으로 태도,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된다(최연실, 1995). 노후에 대한 가치와 노인에 대한 이미지

는 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가치 변화가 행위 변화의 원인인지, 행위 변화가 가치 변화의 원인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것과 같다. 연구자에 따라서 가치 변화가 행위 변화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행위 변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 가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은기수, 2001).

노후에 대한 가치와 노인에 대한 이미지의 관계 또한 이상과 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노후에 대한 가치가 형성되고 이를 기준으로 현 노인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는지, 혹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노후에 대한 가치가 형성되었는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에 대한 가치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입장에서 노후에 대한 가치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노후 가치관 변수는 노후적합한 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한 가치관,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노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마련, 가족·자녀마련,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으로 구분하며, 노후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은 정서적 유대·비슷한 가치관, 근거리거주·빈번한 연락, 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으로 구분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응답자 특성에 따른 영역별 노인 이미지

노인의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정한 네 가지 영역 중 정서적인 측면을 제외한 건강, 지적능력, 경제력에서 비노인층이 바라보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즉, 비노인층은 ‘노인’을 생각할 때 정정한 노인보다는 노쇠한 노인, 현명한 노인보다는 독단적인 노인, 경제력 있는 노인보다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모습을 더 많이 떠올린다. 특히 경제력에 있어서 응답자의 60.4%가 노인은 의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빈곤한 노인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노인은 비판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노인 이미지의 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에 따라 노인의 정서적 특성과 지적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노인은



&lt;표 2&gt; 응답자 특성에 따른 영역별 노인 이미지와의 관계

(단위: %, 명)

		건강		정서		지적능력		경제력		계	사례수
		노쇠	정정	비관	낙천	독단	현명	의존	독립		
성	남	54.3	45.7	46.0	54.0	51.7	48.3	59.5	40.5	100.0	2,582
	녀	54.3	45.7	48.3	51.7	59.3	40.7	60.9	39.1	100.0	5,169
	$\chi^2$	0.000		3.588*		40.388***		1.354		-	7,751
연령	청년(20-39)	60.0	40.0	42.6	57.4	58.4	41.6	59.4	40.6	100.0	3,079
	중년(40-49)	51.0	49.0	50.6	49.4	59.1	40.9	64.8	35.2	100.0	2,407
	장년(50-64)	49.9	50.1	51.0	49.0	52.0	48.0	57.3	42.7	100.0	2,265
	$\chi^2$	68.78***		49.977***		29.724***		30.052***		-	7,751
거주지역	도시	55.7	44.3	47.6	52.4	57.4	42.6	62.2	37.8	100.0	6,441
	농촌	47.1	52.9	47.5	52.5	53.6	46.4	51.8	48.2	100.0	1,284
	$\chi^2$	32.367***		0.004		6.298**		48.726***		-	7,725
교육수준	중졸 이하	47.2	52.8	52.0	48.0	53.7	46.6	57.1	42.9	100.0	2,351
	고졸	54.9	45.1	46.9	53.1	60.2	39.8	61.3	38.7	100.0	3,258
	초대졸 이상	61.1	38.9	43.6	56.4	55.1	44.9	62.9	37.1	100.0	2,111
	$\chi^2$	88.007***		32.018***		29.090***		16.900***		-	7,720
경제수준	200만원 미만	52.9	47.1	48.6	51.4	55.0	45.0	59.4	40.6	100.0	3,683
	200만원 이상	55.6	44.4	46.2	53.8	58.5	41.5	61.4	38.6	100.0	3,901
	$\chi^2$	5.279**		4.249**		9.492***		2.900*		-	7,584
전 체		54.3	45.7	47.5	52.5	56.8	43.2	60.4	39.6	100.0	7,751

주: \* p&lt;0.10, \*\* p&lt;0.05, \*\*\* p&lt;0.01

비관적이기보다는 낙천적이고, 독단적이기보다는 현명하다는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연령별 차이는 노인의 이미지 영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건강과 지적능력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노인은 독단적이기보다는 현명하다'라는 정서적 이미지와 '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기보다는 독립적이다'라는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중년층이 청년층이나 장년층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건강과 경제력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높을수록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정서상태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노인은 정정하기보다는 노쇠하며, 현명하기보다는 독단적이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비관적이기보다는 낙천적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표 3>은 응답자 부모의 특성과 노후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영역별 노인의 이미지의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과 동거 중인 사람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72.0%와 61.1%이다. 이러한 수치는 건강과 정서적 측면보다 한층 부정적이다. 부모의 건강에 따라서는 부모가 건강한 경우 노인은 낙천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경제력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후 가치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가? 노후생활비 마련 책임에 대한 가치관에서 개인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노인의 건강과 경제력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와 지적영역에서는 자녀책임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현 노인 이미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경제적 교환보다는 정서유대와 근거리 거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전 영역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모특성 및 노후 가치관에 따른 영역별 노인 이미지

(단위: %, 명)

		건강		정서		지적능력		경제력		계	사례수
		노쇠	정정	비관	낙천	독단	현명	의존	독립		
노부모	비동거	54.0	46.0	46.7	53.3	56.1	43.9	58.9	41.1	100.0	6,775
동거여부	동거	56.3	43.7	53.3	46.7	61.1	38.9	72.0	28.0	100.0	932
	$\chi^2$	1.746		14.227***		8.298***		59.505***		-	7,707
부모건강	모두 건강	54.5	45.5	44.6	55.4	57.9	42.1	62.4	37.6	100.0	2,859
	건강하지 않음	54.1	45.9	49.3	50.7	56.1	43.9	59.3	40.7	100.0	4,892
	$\chi^2$	0.070		16.220***		2.348		7.019***		-	7,751
노후생활비	본인 마련	51.8	48.2	46.1	53.9	56.7	43.3	57.4	42.6	100.0	3,923
책임 주체	자녀 마련	56.2	43.8	42.6	57.4	50.2	49.8	62.2	37.8	100.0	651
	국가 마련	57.1	42.9	50.5	49.5	58.2	41.8	64.3	35.7	100.0	3,117
	$\chi^2$	20.406***		19.933***		13.826***		35.282***		-	7,691
자녀와 원만한	정서유대	55.8	44.2	45.9	54.1	56.4	43.6	60.4	39.6	100.0	4,270
관계유지방법	근거리 거주	50.2	49.8	46.0	54.0	54.9	45.1	56.8	43.2	100.0	2,399
	경제적 교환	56.7	43.3	58.0	42.0	62.8	37.2	69.0	31.0	100.0	1,023
	$\chi^2$	22.916***		52.118***		18.752***		44.629***		-	7,691
전 체		54.3	45.7	47.5	52.5	56.8	43.2	60.4	39.6	100.0	7,751

주: \* p<0.10, \*\* p<0.05, \*\*\* p<0.01

## 2. 노인 이미지 결정요인

노인 이미지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 정서, 지적능력, 경제력에 각 영역별 결정요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요인은 모든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일부 영역에서만 유의미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네 가지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노인동거여부와 노후 가치관 변수(노후생활비 마련방법,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이미지 영역별로 차이로 보이고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노인은 비관적이기보다는 낙천적이고, 독단적이기보다는 현명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uckman and Lorge(1952)와 안옥희 외(2002) 등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의 경우 건강과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부정적이며, 정서상태에 대해서는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긍정적이며,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장년층에 비해 중년층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연령의 노인 이미지의 차이는 이미지 영역별로 다름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건강에 대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학 이상에 비해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학력이 높아질수록 노인은 노쇠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도 교육수준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육수준은 노인의 정서와 지적 능력에 대한 이미지에 정적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동거여부는 전 영역에서 노인과 함께 사는 집단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동거가 노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임인혜(1987)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노인과 동거경험이 유아기 또는 중·고등학생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핵가족 문화가 확대된 가운데 노인과 동거는 노부모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가구유형으로, 노인과 동거는 성인들에게 노인 부양부담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향후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과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노후에 대한 인식이 노인 이미지에 중요한

&lt;표 4&gt; 노인의 영역별 이미지 결정요인 분석: 로짓회귀분석

변 수	건강		정서		지적능력		경제력	
	b	s.e.	b	s.e.	b	s.e.	b	s.e.
상수	-0.317**	0.127	-0.266***	0.127	-0.284**	0.128	-0.115***	0.190
성(준거=여성)	-0.018	0.051	0.103**	0.051	0.271***	0.051	0.070	0.052
연령(준거=장년: 50-64세)								
청년: 20-39세	-0.198**	0.069	0.221***	0.069	-0.212***	0.069	0.068	0.071
중년: 40-49세	0.063	0.064	-0.027	0.064	-0.215***	0.064	-0.230***	0.066
교육수준(준거=전문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0.405***	0.077	-0.168**	0.077	-0.049	0.077	0.261***	0.080
고등학교	0.209***	0.060	-0.058	0.060	-0.210***	0.060	0.117*	0.062
월가구소득(준거=200만원 이상)	0.029	0.050	0.054	0.050	-0.087*	0.050	0.018	0.051
지역(준거=농촌)	-0.256***	0.065	-0.082	0.065	-0.105	0.065	-0.431***	0.065
노인동거여부(준거=비동거)	-0.155**	0.072	-0.244***	0.072	-0.244***	0.073	-0.633***	0.080
부모건강여부(준거=건강함)	-0.034	0.049	-0.162***	0.049	0.056	0.050	0.094*	0.051
노후생활비마련방법(준거=국가)								
본인마련	0.204***	0.050	0.186***	0.050	0.068	0.050	0.284***	0.051
자녀·가족마련	0.053	0.089	0.260***	0.090	0.304***	0.089	0.047	0.092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준거=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 유대·비슷한 가치관	0.090	0.072	0.437***	0.072	0.287***	0.074	0.411***	0.077
근거리 거주·빈번한 연락	0.246***	0.077	0.475***	0.077	0.262***	0.079	0.492***	0.082

주: 1) \* p<0.10, \*\* p<0.05, \*\*\* p<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0, 긍정적 이미지=1로 코딩함.

결정요인임을 증명한 것이다. 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서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에 비해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노인의 건강, 정서, 경제력 영역의 이미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서와 지적 능력 이미지에서는 국가차원의 마련보다 가족·자녀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노후연금이 본격화되지 않아 국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본인 또는 가족차원의 사적인 방안에 더 지지적임을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향후 젊은 계층의 사회적 노인부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노후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이 노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전 영역에서 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에 비해 근거리 거주·빈번한 연락을 중시하는 집단이 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제외한 노인의 정서, 지적 능력과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정서적 유대나 비슷한 가치

관이 경제적 교환이나 도구적 교환을 중시한 집단보다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 세대간 정서적 유대와 비슷한 가치관, 근거리 거주와 빈번한 연락은 노인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동거경험이 노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경제적이거나 도구적 교환과 같이 의무와 책임이 배제된 정서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질 수 있다.

지역변수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원영희(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농촌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노인이 많은 점, 전통적인 효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점 등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지역변수는 노인의 정서와 지적 능력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은 노인정서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건강한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은 노인이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3. 연령대별 노인 이미지 결정요인

#### 1) 노인 건강에 대한 이미지

노인 건강에 대한 이미지의 연령대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청년층과 중년층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에 비해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 집단이 노인건강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구소득효과는 장년층에서 발견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노인은 정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노인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서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에 비해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에 대한 변수는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유의미성을 나타냈으며 경제적 교환에 비해 근거리 거주와 빈번한 연락을 중요시하게 제시한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gt; 연령대별 노인 건강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변 수	청년(20-39)		중년(40-49)		장년(50-64)	
	b	s.e.	b	s.e.	b	s.e.
상수	-0.492**	0.183	-0.245***	0.217	-0.291***	0.229
성(기준=여성)	-0.103	0.085	-0.079	0.093	0.096	0.091
교육수준(기준=전문대 이상)						
중학교 이하	0.471***	0.181	0.573***	0.131	0.236	0.155
고등학교	0.182**	0.080	0.241**	0.117	0.132	0.160
월가구소득(기준=200만원 이상)	-0.067	0.079	-0.105	0.091	0.287***	0.096
지역(기준=농촌)	-0.262**	0.112	-0.169	0.119	-0.360***	0.107
노인동거여부(기준=비동거)	-0.169	0.136	-0.089	0.121	-0.182	0.123
부모건강여부(기준=건강함)	0.028	0.078	-0.049	0.086	-0.038	0.098
노후생활비마련방법(기준=국가)						
본인마련	0.158**	0.081	0.214**	0.088	0.243***	0.092
자녀마련	-0.023	0.129	0.011	0.193	0.211	0.167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방법(기준=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 유대·비슷한 가치관	0.120	0.124	0.056	0.125	0.127	0.129
근거리 거주·빈번한 연락	0.424***	0.136	0.095	0.136	0.231*	0.131

주: 1) \* p<0.10, \*\* p<0.05, \*\*\* p<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0, 긍정적 이미지=1로 코딩함.

## 2) 노인 정서에 대한 이미지

노인 정서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의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청년층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성, 교육수준, 노인동거여부, 부모건강여부, 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 대한 인식,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인식이다. 청년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등학교 학력보다는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노인과 동거할 경우,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 노인의 정서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또한 노후 생활비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자녀·가족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경제적 교환보다는 정서적 유대나 근거리 거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인의 정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중년층은 노후생활비 마련방법과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에 대한 인식에 따라 노인의 정서에 대한 이미지가 차이를 보였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과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에서는 청년층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장년층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이,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표 6> 연령대별 노인 정서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변 수	청년(20-39)		중년(40-49)		장년(50-64)	
	b	s.e.	b	s.e.	b	s.e.
상수	0.316*	0.181	-0.342	0.218	-0.751***	0.232
성(준거=여성)	0.145*	0.085	-0.101	0.093	0.222*	0.092
교육수준(준거=전문대 이상)						
중학교 이하	-0.110	0.184	-0.053	0.130	-0.073	0.156
고등학교	-0.162**	0.079	0.075	0.117	0.081	0.161
월가구소득(준거= 200만원 이상)	0.000	0.079	-0.001	0.091	0.189*	0.097
지역(준거=농촌)	-0.171	0.114	-0.142	0.119	0.020	0.108
노인동거여부(준거=비동거)	-0.461***	0.132	-0.096	0.121	-0.167	0.125
부모건강여부(준거=건강함)	-0.190**	0.078	-0.126	0.086	-0.114	0.098
노후생활비마련방법(준거=국가)						
본인마련	-0.075	0.080	0.308***	0.088	0.383***	0.093
자녀마련	0.308**	0.131	-0.063	0.195	0.330**	0.168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준거=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 유대·비슷한 가치관	0.355***	0.120	0.453***	0.126	0.509***	0.132
근거리 거주·빈번한 연락	0.443***	0.130	0.430***	0.138	0.537***	0.134

주: 1) \* p<0.10, \*\* p<0.05, \*\*\* p<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0, 긍정적 이미지=1로 코딩함.

국가보다는 본인 또는 자녀가족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 노후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경제적 교환보다는 정서적 유대와 근거리 거주를 중요시할 경우 노인의 정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 3)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청년층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교육수준, 노인동거여부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학 이상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해 부정적이며, 노인동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에서는 성, 부모건강여부, 노후생활비마련방법,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 노후생활비 마련에서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노후 원만한 자녀관계를 위해 정서적 유대와 근거리 거주를 응답한 경우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은 성, 노인동거여

&lt;표 7&gt; 연령대별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변 수	청년(20-39)		중년(40-49)		장년(50-64)	
	b	s.e.	b	s.e.	b	s.e.
상수	-0.077	0.182	-0.979***	0.224	-0.519**	0.230
성(준거=여성)	0.340***	0.083	0.289***	0.094	0.164*	0.091
교육수준(준거=전문대 이상)						
중학교 이하	-0.109	0.183	0.100	0.132	0.114	0.155
고등학교	-0.337***	0.079	0.042	0.119	-0.067	0.160
월가구소득(준거=200만원 이상)	-0.151*	0.079	-0.087	0.092	0.058	0.096
지역(준거=농촌)	-0.108	0.114	-0.099	0.120	-0.143	0.107
노인동거여부(준거=비동거)	-0.324**	0.137	-0.093	0.124	-0.320***	0.125
부모건강여부(준거=건강함)	-0.039	0.078	0.200**	0.088	0.071	0.098
노후생활비마련방법(준거=국가)						
본인마련	-0.105	0.080	0.175*	0.090	0.174*	0.092
자녀마련	0.179	0.126	0.270	0.194	0.482**	0.168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준거=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 유대·비슷한 가치관	0.035	0.123	0.459***	0.132	0.425***	0.130
근거리 거주·빈번한 연락	0.190	0.135	0.390***	0.143	0.217*	0.132

주: 1) \* p<0.10, \*\* p<0.05, \*\*\* p<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0, 긍정적 이미지=1로 코딩함.

부, 노후생활비마련방법,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에 대한 인식이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층과 유사한 결과이다.

#### 4) 노인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

노인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을 청·중·장년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우선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 지역과 노인동거여부,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다.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이, 노인과 동거할 경우 노인의 경제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노후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 유대와 근거리 거주를 중요시 한 경우 노인의 경제력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과 노인동거여부가 노인경제력에 주요한 영향변수인 것은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으며,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의존적일 가능성이 높은 실태를 반영한 결과로 예측된다.

중년층에서는 노후생활비 마련의 책임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노인의 경제력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장년층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전문



&lt;표 8&gt; 연령대별 노인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변 수	청년(20-39)		중년(40-49)		장년(50-64)	
	b	s.e.	b	s.e.	b	s.e.
상수	-0.627***	0.186	-0.784**	0.232	-1.145***	0.241
성(준거=여성)	-0.014	0.085	0.029	0.098	0.232**	0.094
교육수준(준거=전문대 이상)						
중학교 이하	0.138	0.186	0.013	0.137	0.638***	0.165
고등학교	0.108	0.080	0.039	0.124	0.266	0.171
월가구소득(준거=200만원 이상)	-0.054	0.079	-0.032	0.095	0.150	0.099
지역(준거=농촌)	-0.404***	0.113	-0.435***	0.122	-0.444***	0.108
노인동거여부(준거=비동거)	-0.754***	0.147	-0.752***	0.141	-0.435***	0.131
부모건강여부(준거=건강함)	0.165**	0.079	-0.069	0.090	0.174*	0.101
노후생활비마련방법(준거=국가)						
본인마련	0.124	0.081	0.259***	0.093	0.544***	0.095
자녀마련	0.004	0.129	0.081	0.207	0.101	0.174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방법(준거=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 유대·비슷한 가치관	0.500***	0.129	0.567***	0.142	0.187	0.135
근거리 거주·빈번한 연락	0.586***	0.141	0.623***	0.152	0.286**	0.136

주: 1) \* p<0.10, \*\* p<0.05, \*\*\* p<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0, 긍정적 이미지=1로 코딩함.

대학이상 학력자에 비해 중학교 이하 학력자, 노후생활비 마련의 책임이 본인이라고 생각할수록 노인의 경제력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의 노인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노인의 건강, 정서, 지적 능력, 경제력 등 다양한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과 노인동거여부,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노후생활비마련방법과 자녀와 원만한 관계유지에 대한 인식) 등이다. 본 연구에서 연령대별로 노인이미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건강과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정서와 경제력에 대해서는 긍정

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영역별로 그 방향을 달리함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노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20대 이상의 청년, 중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들에게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부모의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동거할 경우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노후 가치관이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노후에 생활비를 마련하는 적합한 방법에 대한 생각, 노후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는 노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변수에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노인 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정경희 외, 2007).

셋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변수는 영역별 뿐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청년, 중년, 장년들이 가진 각 영역별 이미지는 다른 요인으로 설명된다. 노인건강에 대한 이미지의 경우 청년층에서는 노후에 원만한 자녀관계 유지방법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장년층에서는 월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서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청년층은 노인동거여부와 부모의 건강여부가 유의미한 반면, 중년층과 장년층에서는 노후 가치변수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의 경우, 청년층에서는 성과 교육수준, 노인동거여부, 중·장년층에서는 노후생활비마련방법과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별 영향요인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공적 노후의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위에서 성공적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접하는 것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다. 연구결과에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과 노후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의 방법에서 정서적 유대와 빈번한 연락의 중요성의 인식이 노인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성공적 노후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된 건강유지, 신체적·정신적 기능유지, 지속적인 사회참여(Rowe and Kahn, 1998)의 달성을 위해서는 노년기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건강관리 및 기능유지 프로그램의 실시,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취업 등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개발하며, 노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평생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동거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과의 동거는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 부양부담을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현실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노후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년층은 노인에게 가장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장년층은 노인의 성격 측면에서의 노인은 비관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시일내에 맞이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화와 노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준비교육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청년보다 더 강한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노인의 다양성은 발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의 명칭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늙고 병들고 고집이 세고, 부양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 이미지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활용한 자료가 노인 이미지 연구만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 이미지를 측정하는 신뢰성 높은 척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둘째,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 기존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탐색적 연구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노인 이미지와 실제 노인이 처한 현실과의 관계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이들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향후 연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곽필선 (1989)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숙 (1987) “청소년의 노인관계에 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 (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3(1): 13-30.
- 김연수 (1993)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2002) “중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3): 75-89.
- 김정환 (2005) 《중고령자 고용안정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김지형·장윤옥 (2001)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17.
- 김혜경 (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대한민국정부 (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 동아출판사 (2006) 《동아 새국어사전》.
- 박경란·이영숙 (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2): 71-83.
- 서병숙, 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신귀연 (1996)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옥희 외 (2002)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 《한국생활과학지》 11(4): 347-355.
- 옥은진 (1990)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영희 (200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87-206.
- 윤성혜 (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조성미 (1982) “경산노화사실인지 척도의 구성연구” 《한국노년학》 2: 5-15.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 전략적 방안모색” 《노인복지연구》 26: 143-164.
- 이선자 (1989) “전 연령 노인태도 연구: 연령군별 노인태도에 영향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시형 외 (1999)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신숙·Sonia (2005)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95-218.
- 이영숙, 박경란 (2002)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3): 29-41.
- 이은미 (1999)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수 (2000) “농촌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123-135.
- 임인혜 (1987)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기수 (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241-258.
- 정경희 외 (2005)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 (2007) 《고령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사회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명희 (198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분석” 《지역환경》 5: 73-87.
- \_\_\_\_\_ (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혜 (1990) “대학생 태도 분석에 따른 노인복지대책”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용은 (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연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논문집》.
- 최연실 (1995)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춘혁 (1992)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연구: 서울시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Hanley, C. (1999) “Experiential Activities for Teaching Psychology of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5: 449-456.
- Kogan, N. (1961) “Attitude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44-54.
- Nuessel, F. H. (1982) “The Language of Ageism” *The Gerontologist* 22(3): 273-275.
- OECD (2005) *Expanding Opportunities*.
- Rowe, J., and R. Kahn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Schwartz, L., and J. P. Simmons (2001) “Contact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7: 127-137.
- Seefeldt, C. R., R. K. Jantz, A. Galpur and K. Serock (1977)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 301-310.
- Steitz, J. A. and B. S. Verner (1987) “What Adolescents Knows about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13(5): 357-368.
- Troxler, A. J. (1971)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1(34): 11-34
- Tuckman, J. and I. Lorge (1952) “Attitudes toward Old Worke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149-153.
- Ward, C. R., M. E. Duquin and H. Steetman (1999)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Message on Future Caregivers: Attitude toward Aging, the Elderly and Caring for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5(3): 35-46.

## ENGLISH ABSTRACTS

**Images of the Elderly held by Non-Elderly***Yun-kyoung Lee*

This study explores the images of the elderly held by non-elderly.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topic, it considers various dimensions of the images including health, personality, intelligence, and economic ability. The study also attempt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images by age groups of non-elderly as well as the dimensions above. The data come from a nationwide survey on the Korean Elderl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04. Analysis of the samples aged 20-64 reveals that the overall image of the elderly are negative across four dimensions. Nonetheless, differences by dimensions are also observed. Young people in their 20s are more likely than other age groups to have negative views on elderly's health. In the meanwhile, the middle aged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views on elderly's economic ability. Multivariate analysis based on logit regression model shows that the images of the elderly are affected by age, place of residence, co-residence with older persons, attitude toward life in old ag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ntain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lderly's images in rapidly aging society.

**Key Words:** views on the elderly, dimensions of images of the elderly, age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the elderly